

“책만 팔지 않습니다. 문화를 함께 팝니다.”

## 대한민국의 관문에 선 문화전령사, 지에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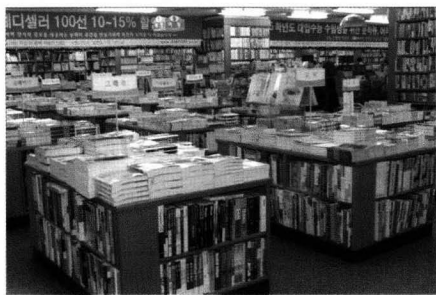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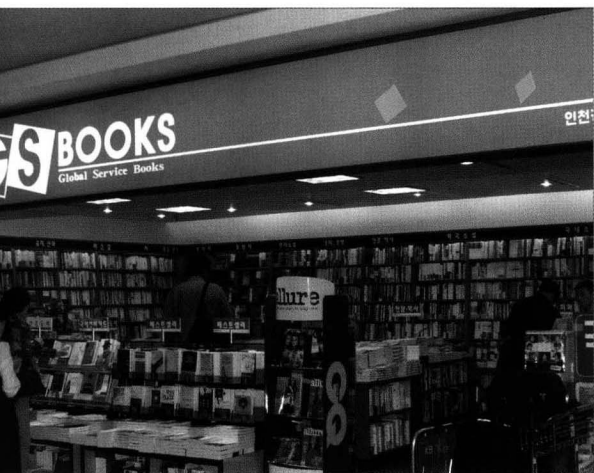
지역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만남의 공간'이 있다. 영등포문고가 전신인 지에스북GS Books은 영등포 지역의 '만남의 공간'으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에게만 선택받은 공간은 아니다. 영등포역을 통해 서울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지에스북을 단골서점으로 꼽을 정도다. 지에스북하면 영등포 본점인 구 영등포문고를 쉽게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1988년 본점 개업 이후 1994년 KBS 방송국 내 지점을, 1997년 대전 계룡문고를 내며, 지에스북은 부지런히 사업을 확대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2001년 3월 대한민국 첫 관문인 인천공항에 지점을 낸 것. 지에스북 인천공항점 역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서울 관문에서 대한민국 관문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본점을 차리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명社名을 영등포문고로 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지역에 지점을 내게 되면서 상호를 새로 지을 필요를 느꼈지요. 2001년 인천공항점을 오픈하며 글로벌서비스Global Service의 머리글자를 따 지에스북이라는 지점명을 내세웠는데,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이름이라고 판단돼 2002년부터 그것으로 사명을 통일했습니다.”

지에스북 이강산(50) 대표는 '은근懨懨'의 힘을 알고 있다. 서울의 관문 영등포역과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에 서점을 차린 경영전략이 그것을 보여준다. 지에스북에 대한 인지도는 여느 대형서점 이상인데, 두 관문을 들고나는 사람들이 지에스북 브랜드를 은근하고 자연스레 익힌 까닭이다. 관문에 자리한 만큼 고급서점이라는 인식도 함께이다.

직장과 지식공간의 어울림을 보여준 KBS 방송국 내 지점, 문화전령사 역할을 담당하는 대전 계룡문고 등 지에스북의 각 지점별 컨셉트는 뚜렷하다. 책만 가져다놓고 서점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지에스북은 보여준다. 그 가운데 이 대표가 인천공항점에 들인 애정은 각별하다. 인천공항 내 8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점은 각 층별 특성에 따라 컨셉트를 달리 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상주직원이 많은 지하매장과 2층매장에는 북클럽 회원제를 적극 알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그 곁에 문구매장을 두어 고객편의를 높였다. 출국장으로 통하는 3층 매장에는 여행중에 읽으면 좋을 간단한 책들을 선별해 두어 책과 함께 하는 여행문화를 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 1 지에스북 인천공항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2 지에스북 영등포본점 내부
- 3 지에스북 이강산 대표

1 2 3

“세계 국제공항에 자리한 서점들을 둘러보며 어떻게 운영되고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등 안다녀 본 곳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 산업의 역량과 고유의 문화를 보여주는, 민간외교의 장이 되고자 신경쓰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외연수를 보내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표는 공항 용도에 따라 분할된 공간이라 대형매장을 차릴 순 없었지만, 각 층과 가장 유기적인 어울림을 보여주는 공간이 지에스북임을 자신한다. ‘따로 또 같이’라는 것이 지에스북 인천공항점이 갖는 핵심 컨셉트인 셈이다. 인천공항점의 매출은 개점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공항점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많지만, 이익을 보고 차린 지점이 아닌 만큼 현재 실적에 만족한다”며 나름대로의 보람을 말한다.

### 책 읽는 문화 전하는 문화활동 활발

지에스북은 책을 파는 공간이기보다 책 읽는 문화가 전달되는 곳이길 원한다. ‘북카페’의 개념이 없던 때, 지에스북은 대전 지점 계룡문고에 40여 평 크기의 북카페를 마련해 서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북카페는 단순히 고객들의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 대전 지역 문화단체인 ‘책을 읽어주는 어머니 모임’,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 모임’, ‘대전녹색운동연합’ 등과 연대해 정기적 행사를 갖고 있으며, 신경숙, 공지영, 안도현, 박노해 등 유명 문인들을 초대해 긴 시간 독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와 함께 떠나는 문화기행, 유치원 서점 견학, 학교 도서 바자회 후원, 책과 장미꽃 나눔 행사 등을 펼치며 문화활동에 감양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부족한 지방지점에서 더 많은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서점보다 질적으로 나는 문화이벤트를 기획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해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이 대표는 시골학교와 군부대에도 사랑의 책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시골 분교에 학생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 대표는 말한다. 도시 결손가정이 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시골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선별해 보낸 이 대표는 올해부터 지역주민과 선생님을 위한 책을 보내는 데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학교도서관이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뀔 때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지에스북의 성숙한 기업정신이 엿보이는 대목. 1979년 열다섯 평으로 시작한 영등포서적이 기원이니 오늘 지에스북은 스물다섯 탄탄한 청년의 근골을 자랑하고 있음이다.

“25년 동안 크고 작은 다섯 곳의 서점을 차렸습니다. 무리수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 확대보다는 사업 정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해야 하지요. 책 읽는 문화를 이끌어 사회에 유익을 제공하는 지에스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남의 공간’을 이유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사회에 유익을 제공한다’는 모토는 어느 기업이나 자신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지에스북이다. “얼마 만큼 사회에 이익을 돌리는가, 그것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란 이 대표의 다짐이 한층 진솔하게 와 닿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취재 | 박용두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